제 6장

ELIJAH

아합이라는 연약한 사람이 왕국의 북쪽 절반,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B.C. 918년). 그는 사마리아에서 시돈 사람들 가까이에 살았습니다. 시돈 사람들은 바알 숭배자들이었지요. 아합은 바알 제사장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이세벨은 자기 종교에 대한 열의가 대단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멸했고 온 나라에 바알 숭배를 권장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찾아내어 죽여 버려. 이제부터 바알이 우리의 신이다.
왕에게는 여호와를 섬기는 오바댜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찾아 일러줘야겠군.

오바댜는 선지자 백 명을 동굴에 숨겨놓고 먹을 것과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약 B.C. 918년경 – 열왕기상 16:28, 31, 18:4

하지만 숨어있지 않으려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엘리야였지요.

아합 왕이여, 왕이 왕의 조상의 하나님을 버리고 아내 이세벨을 따라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제가 명할 때가지 이스라엘 땅에 비나 이슬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으하하! 그래 네가 선지자란 말이지? 글쎄, 나에게 선지자가 천 명이 있는데 가뭄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지난 몇 해 동안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았느냐? 이 경건한 척하는 사기꾼아, 썩 물러 가지 못하겠느냐!

기근이 점점 심해지면서 사람들이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바알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바알은 응답하지 못했지요.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없이 가뭄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한 과부의 집에 보내며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녀가 방을 내주고 먹을 것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탁이오, 물 한 잔과 먹을 빵 한 조각만 좀 주시겠소?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제게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는 작은 빵 두 개를 구울 수 있을 뿐입니다. 저와 아들이 먹으려고 막 구우려던 참이었지요. 그걸 먹고 나서 둘이 누워 죽기를 기다리려 했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희를 죄 때문에 벌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보살펴 주실 거요.
당신이 말하던 빵을 구워 먼저 내게 가져오시오. 그 다음에 당신과 아들도 먹으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 양식통과 네 기름병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는 그 날까지 비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소.

열왕기상 17:1, 10~16

따라내어 비울 수 가 없어요! 계속 생 기는데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참 좋으시네요!
그 후로 2년 동안 그 들 셋은 그 양식통 하나로 빵을 구워먹 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엘리야가 과부 집에 있는 자기방으로 돌아와보니 과부의 아들이 죽어 있었습니다.
열이 나 눕더니 죽었어요!

제가 당신을 해친 적이 있나요? 저의 죄를 다시 상기시키고 하나님이 제 아들을 죽이게 하시려고 여기 오셨나요?
이스라엘에는 아직 하나님이 계시오.

오, 여호와여, 이 아이의 영혼이 다시 그 몸 속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엘리야 의 기도를 듣고 그 아이의 영혼 을 다시 죽은 몸 속으로 돌려 보 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당신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지 않았소.
내 아들!

열왕기상 17:17~24

기근은 삼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리면서도 계속하여 거짓 신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왜 바알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비를 내려주지 않지?
어쩌면 바알은 그냥 멍청한 우상인지도 몰라. 귀가 없는...

이세벨과 아합은 이 기근이 엘리야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군사들을 온 나라와 심지어 주변 나라들에까지 풀어 엘리야를 찾으려 했습니다. 보이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는 명령을 가지고 말이지요.
엘리야를 내보내. 만약 그를 숨기면 너도 죽일 거다.

아합이여, 나를 찾고 있나이까?
네가 이스라엘을 이 기근으로 괴롭히는 장본인이구나.
왕이야말로 우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장본인입니다. 여호와와 바알을 비교해 봅시다. 왕의 선지자 450명을 데리고 갈멜산으로 오십시오.
비교해 본다고 했나? 재미있겠군. 그럼 거기서 보지.

며칠 후 갈멜산에서.
언제까지 두 의견 사이에 머뭇거릴 거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소. 만약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면 그에게만 예배하시오. 만약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바알에게만 예배하시오. 마음을 정해야 하오.
너희 바알 선지자들에게 도전하겠다. 두 신을 비교하여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가려내자.
좋아, 신들의 비교라.... 어떻게 할 것인가?
열왕기상 18:1, 4, 17~21

너희는 바알에게 제단을 쌓고 나는 여호와께 쌓겠다. 제단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나무 위에 제물을 놓되 그 밑에 불은 두지 말라.
너희는 너희 신 바알에게 기도하고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기도에 응답하여 제물에 불을 보내는 이가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모두 그에게만 예배드릴 것이다. 너희 수가 나보다 월등히 많으니 먼저 시작하라.

오, 바알이여,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당신의 위
대한 이름에 이 제물
을 바치옵니다.

아, 위대하고 크
신 바알이시여!
하늘의 여왕
이시여, 지금 오
셔서 바알을 도와
주옵소서!

만약 바알이 신이라면 너희를 외면하고 있군. 어쩌면 얘기하느라 너희 말을 못 듣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여행 중이거나, 잠자고 있는지도 모르지.
이 바보같은 자식! 좀 더 잘 하지 못해?
열왕기상 18:22~27

그래, 그런 거야! 자고 있으니 더 큰 소리로 외쳐서 깨우라구.
이봐들, 포기하지 말게. 혹시 우리가 몸에 상처를 내면 바알이 기뻐하실지도 몰라.

바알 선지자들은 필사적이 되어 자기 몸을 땅에 내던지고 칼로 자기 살을 베고 바알이 들을 수 있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악
꺄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아악!
바알이여, 제 피를 바칩니다. 응답해 주소서! 불을 보내 주소서! 당신 자신을 입증하소서!

하하! 잘들 하는군! 아홉 시간 동안이나 응답하지도 않는 신에게 부르짖었다니. 만약 그가 하나님이라면 분명 이 기회에 자기를 증명하실 거다.
이제 내 차례야. 가까이 와서 내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게.
오 바알이여,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열왕기상 18:28~30

왜 이렇게 깊이 땅을 파지?
시간을 끌고 있을 뿐이야. 날이 어두워지기를 바라면서.
언제부터 기도할 건가? 이건 땅 파기 시합이 아니잖아.
가서 물 네 통을 가져다가 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물? 물에 젖으면 불타지 않을텐데.

충분히 젖지 않았어. 물 네 통을 더 가져다 부어라.
이 선지자 미쳤군. 살아서 해가 지는 걸 보지 못할 거다.
완전히 돈 것 아냐? 왜 왕이 이걸 참고 계시지?
열왕기상 18:32~34

허허. 살아계신 하나님께 어려운 게 뭐가 있나? 물 네 통을 더 부어라. 너희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이름이 바알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다니 아합이 이 자를 죽일 거야.

뒤로 물러 서라.
더 멀리.
뒤로 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저는 당신의 종이며 당신이 저들의 마음을 당신께로 돌아오게 하셨음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우르릉!
타타탁!
아아아악!
어어어!
열왕기상 18:35~38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무 뜨거워!
하늘에서 온 불이다!
사람 살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다.
돌과 흙까지도 태웠잖아!
형체도 없이 이런 일을 하다니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

모세는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 중 다른 신을 숭배하는 자는 누구나 다 죽여야 한다고 명했지.
아니요! 좀 봐 주십시오!
열왕기상 18:38~40

저들을 죽여라! 850명 모두!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저들을 칼로 쳐라. 지금 당장!
바알의 선지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이시여, 어서 먹고 마신 후에 서둘러 집으로 떠나셔야 합니다.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삼 년 반 전에 엘리야는 아합에게 자기가 비를 명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말했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죽고 사람들이 다시 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서 엘리야는 비가 내릴 것을 명했습니다.
큰 폭우로 강물이 불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고립될까 두려워 그들은 서둘러야 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에게서 능력을 받아 궁전으로 돌아오는 30여 킬로미터 길을 마차를 앞서 달려갔습니다.

열왕기상 18:40~41, 44~46, 19:1

내가 그들을 다 죽였소. 그들은 다 거짓말장이에 다 사기꾼들이었어!

뭐라구? 이런 바보 같으니! 엘리야를 죽였어야지요!

하지만 그의 하 나님이 불로 응답하셨소. 그건 기적이었지. 우리 제사장들은 무능했소. 사람들이 모두 여호와께로 돌아섰다구.

여보, 내가 뭘 더 할 수 있었겠소? 나는 백성이 두려웠다구.
당신이 내 선지자들을 죽였어.
이 멍청이 같으니!

어떤 기적도 바알의 분노에서 엘리야를 보호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기를 원하노라.
어서 달아나야만 해.

열왕기상 19:1~4

오, 하나님, 견딜 만큼 다 견뎌 왔습니다. 이제 이세벨이 저를 찾기 전에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제가 당신을 신뢰하지 못했네요. 저도 죄 많은 저의 조상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저를 죽여주십시오.

엘리야는 40일을 도망쳐 광야 깊숙이 들어가 동굴에 숨었습니다. 그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바로 그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느냐?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렸습니다. 당신의 선지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구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저밖에 남지 않았고, 지금 사람들은 저를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 주님 앞에 서라.

엘리야가 주님 앞에 서 자 강한 바람이 일었으나 하나님은 그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9:4, 8~12
그 다음에는 지진이 일어났으나 하나님은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지만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 세벨보다 훨씬 더 무서운 능력이 있으심을 보여주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람과 지진과 불이 모두 멈춘 후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미하고 조용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엘리야에게 전에 물은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엘리야,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느냐?
엘리야는 아무 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있었기에 그는 전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렸습니다. 당신의 선지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구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저밖에 남지 않았고, 지금 사람들은 저를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좋다. 네가 이 길을 원한다면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내 선지자게 되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에 바알의 상에 절하지 않고 그 발에 입맞추지 않은 자 7천명이 있다. 자, 이제 길을 떠나거라. 아합의 가족은 모두 죽을 것이다.

엘리야는 엘리사가 소를 앞세워 밭을 갈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그의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제가 여화와께 소를 제물로 바친 후 바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열왕기상 19:12~21

아합의 궁전 바로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자주 창밖을 내려다 보며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였습니다. 그게 자기 것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지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웃의 땅이 점점 더 욕심이 났습니다. 십계명에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했지만 아합의 안중에는 여호와가 없었습니다.

아합은 돈이 많았으므로 그 포도원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포도원을 내게 팔아라. 내 궁전 바로 옆에 있지 않나. 네게는 다른 곳에 이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사 주마.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었습니다.

이 땅은 500년이 넘는 동안 저희 가문의 땅이었습니다. 법의 명령에 따르면 저희는 저희 땅을 가족 외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는 안 됩니다.

여보, 말 좀 해 봐요. 왜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뭐가 그리 슬프지요?
나봇이 자기 포도원을 내게 절대 안 팔겠다는군.

출애굽기 20:17; 열왕기상 21:1~7
당신은 왕이에요.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구요. 비천한 농부 하나가 당신의 기쁨을 방해하게 하지 말아요. 제가 그 포도원을 빼앗아 드리지요.

일을 잘 끝마치면 더 줄 거야. 입 다물고 있어. 아니면 똑같은 신세가 될테니까.

모세의 법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하지 말라"고 합니다.
짤랑

저기. 바로 저 사람이야.
맞아. 저 사람이 왕이 죽어야 한다고 했어.
또 하나님이 악마를 보내 왕에게 들리게 할 거라고 했어.
그러면 죽어 마땅하지.
그들은 나봇을 끌어다 죽였습니다.

자, 여보, 이제 포도원은 당신 거예요. 냉혹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앞서가지 못해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구요.
너무 아름답군, 안 그래? 내가 이 걸 가질 자격이 있는 거 맞지, 그렇지?
이세벨은 자기 신 바알이 눈이 없어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행위를 다 보고 절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요.
출애굽기 20:16; 열왕기상 21:10~16

엘리야,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내려가 있느니라. 가서 그를 만나 나의 말을 전하거라.

아합, 당신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그의 재산을 가로챘다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해주라 하셨소. 당신이 전에 행한 죄들과 이 일로 인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던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의 피도 핥게 될 것이오.
내 대적이 나를 여기서 찾았구나.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는 없소. 당신이 소유물을 위해 영혼을 팔았으니 하나님이 당신 집안 전체에 재앙을 내리실 것이오. 당신의 자녀들과 친척들은 어린아이까지 모두 다 죽을 것이오.
당신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소. 개들이 당신 집 성벽 아래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오. 또 당신 집안 사람이 성읍에서 죽으면 개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그들을 먹을 것이오. 존엄하게 묻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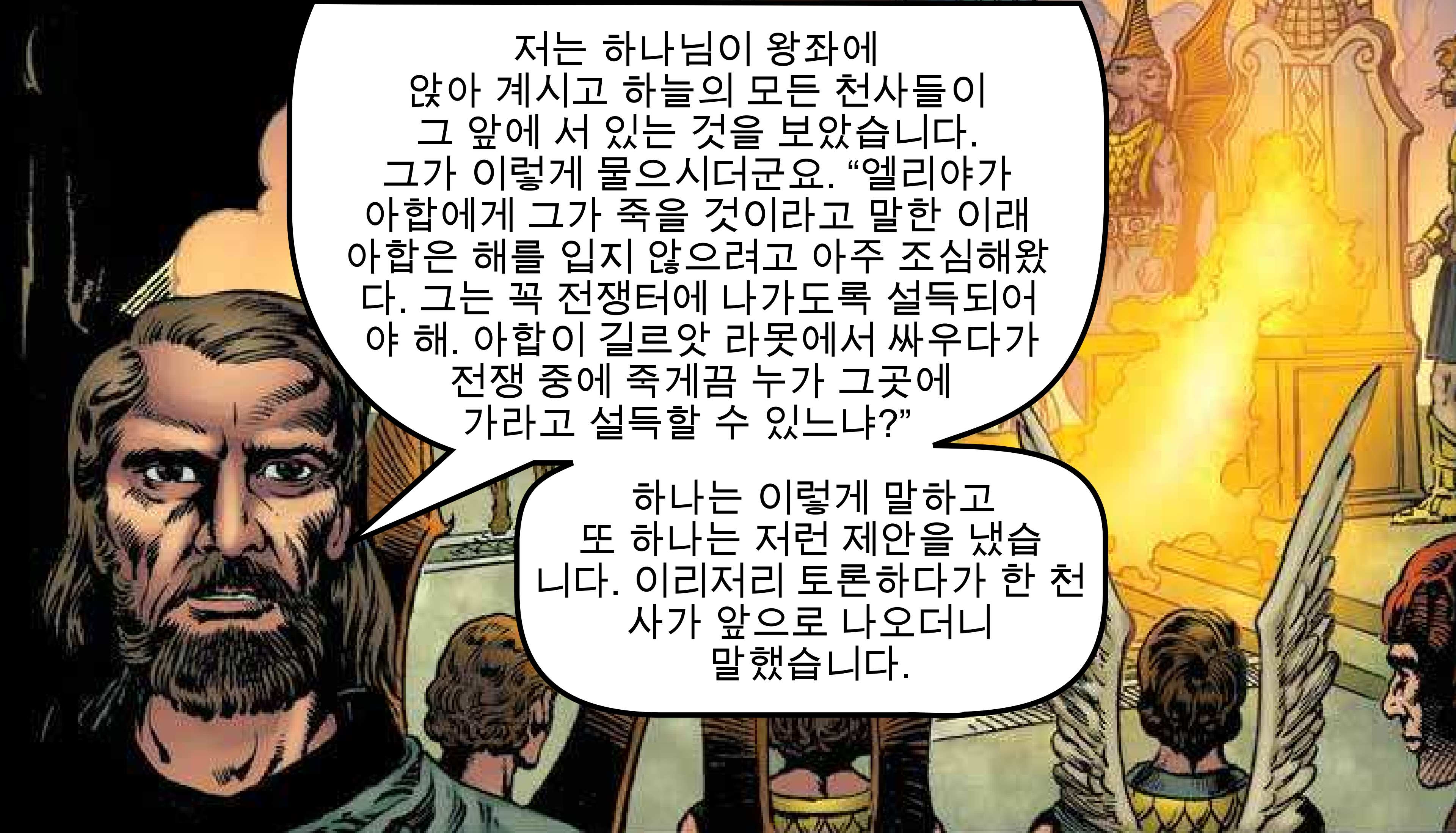
이것은 하나 님의 말씀이니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오.
아, 제발. 이제부터 여호와께 제물을 바 치겠소.
열왕기상 21:17~26

이제까지 엘리야가 말했던 것들은 다 이루어졌었는데.
아합은 이제 여호와께 제물을 바쳤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그를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거짓 선지자들이 군사 문제를 놓고 아합 왕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올라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겁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다 이에 동의하느냐?

아합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왕께서는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 그 곳에서 전쟁 중에 목숨을 잃으실 것입니다.
미가야의 말을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저 자만이 여화와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길르앗 라못에서 엄청난 부와 성공을 얻으시리라고 예언하는 저희 선지자가 400명입니다.
미가야는 정말 맘에 안 드는구나. 하는 말마다 너무 부정적이야.

아합 왕이시여, 왕께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돈을 받고 일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의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들은 거짓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왕좌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물으시더군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그가 죽을 것이라고 말한 이래 아합은 해를 입지 않으려고 아주 조심해왔다. 그는 꼭 전쟁터에 나가도록 설득되어야 해. 아합이 길르앗 라못에서 싸우다가 전쟁 중에 죽게끔 누가 그곳에 가라고 설득할 수 있느냐?”
하나는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는 저런 제안을 냈습니다. 이리저리 토론하다가 한 천사가 앞으로 나오더니 말했습니다.

좋은 방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아합의 거짓 선지자 모두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아합이 전쟁에 나가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구나. 그가 승리할 것이라고 저들이 예언하겠고,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 내가 그를 죽게 하겠다. 그러면 가라!
열왕기상 21:27, 22:6~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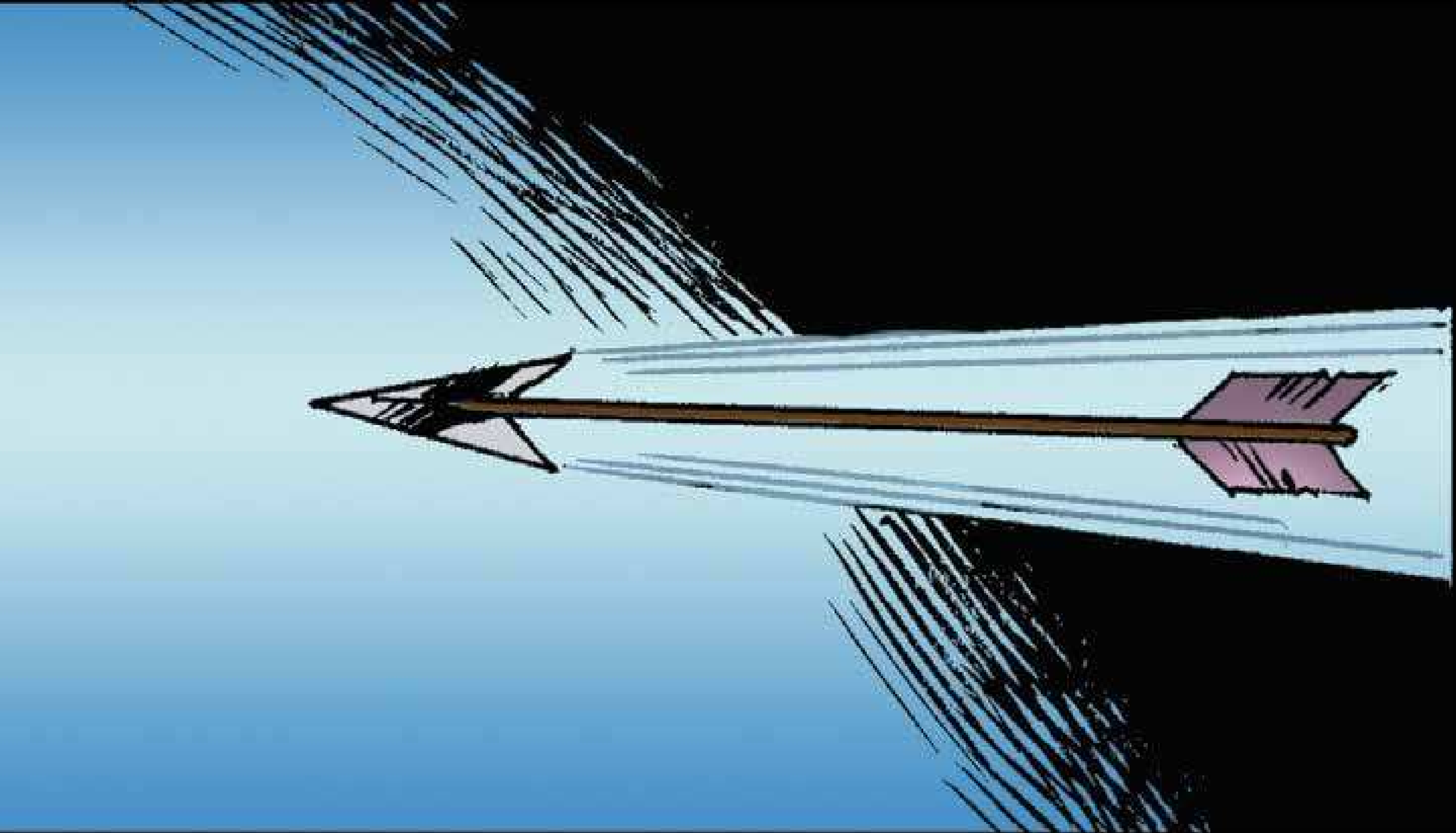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네게 말씀하셨단 말이냐?
철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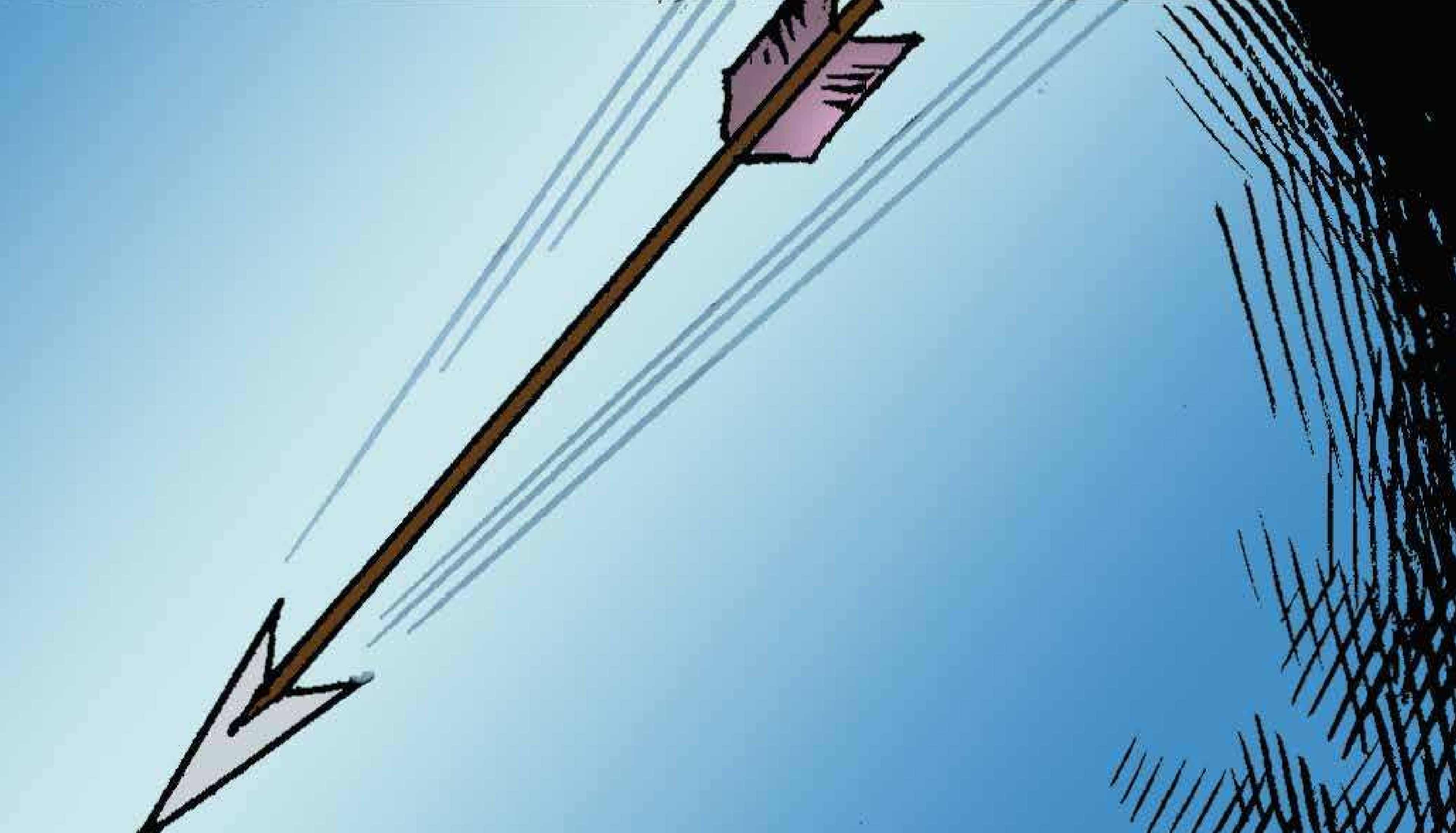
네가 목숨을 부지하려고 골방에 들어가 숨는 날에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네가 알 것이다.
이건 또 뭐야? 또 다른 예언인가, 응?

이 놈을 감옥 안에 가두고 내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까지 목숨을 유지할 만큼만 먹여라. 돌아오면 저 놈을 죽이겠다.
전쟁에서 살아 돌아오시면 저는 거짓 선지자이고 죽어 마땅합니다.

보통 병사로 위장하 시다니,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폐하가 왕이심을 적들은 절대 모를 겁니다. 우리 전사들도 잘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폐하가 살아 돌아가시면 그 선지자의 얼굴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렇다. 그리고 이 갑옷이 어떤 화살도 뚫지 못하게 날 보호해 줄거다.
열왕기상 22:24~30

한 병사가 누구를 겨냥하지도 않고 그저 적 한 명에게 꽂히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늘을 향해 활을 높이 쏘았습니다.





딱!
으아아아악!
이럴 수가.

열왕기상 22:34

돌아가신 것 같아.
갑옷으로 보호 되지 않은 그 한 자리에 화살이 꽂혔군. 돌아가실 운명이었나봐.
맙소사, 안돼!

제대로 처리할 시간이 생길 때까지 왕의 시체를 일단 나봇의 포도원에 넣어두어라.

바로 엘리야가 말한 대로 개들이 이세벨
의 창문 아래서 아합의 피를 핥고 있었
습니다. 그의 집안에서 그가 가장 먼저
였고 그의 가족들이 뒤따를 것이었지요.

열왕기상 22:37~38; 열왕기하 9:8~10

이 멍청아!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말쟁이야! 아합왕은 여호와의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대로 죽었다.
그럴리가 없소. 독실한 선지자들이 다 동의했었소. 아합왕이 승리할 거라고.
다는 아니지. 네가 뺨을 때리고 감옥 안에 처넣은 미가야는 동의하지 않았어. 백성이 이 소식을 들으면 네 머리를 벨 거다.

이제 가도 좋소. 아합은 죽었소.
알고 있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겠지. 다음 사람은 이세벨일 것이고 그 뒤로 아합의 친척들도 다 죽을 거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소.

숨어야 돼.

이럴 수가! 내가 골방에 숨는 그 날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었는지 알게 될 거라고 미가야가 말했었는데.

아합의 후손들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이세벨은 그 후로 12년을 더 이스라엘의 왕후로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거짓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것이었지요.
하나님은 아합의 집안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었다. 아합의 가족들은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다 죽을 것이다. 누구도 살아 남지 못해. 이세벨은 개들에게 먹힐 것이고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그를 묻지 않을 것이다.”

12년 후

열왕기하 9:30

통치권이 내게 있음을 저들이 볼 수 있게 여기 서 있어야지.

누가 내 편이냐?

장군님, 저희가 장군 편입니다.
그러면 이세벨을 아래로 던져!
그러지 못한다. 나는 왕후야!

열왕기하 9:32~33

시체를 그냥 내버려 둬.

개들이 모여들어 이세벨의 남편의 피를 핥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이세벨의 피를 핥고 그 시체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였지요.
으르르릉..!

하지만 개들은 수 많은 악을 행한 더러운 손만은 먹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9:33~37
선지자들이 말한대로 남은 아합 자손들은 모두 시민들에게 죽어 그 집안에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들에서 죽은 자들은 공중의 새들이 먹었고 성읍에서 죽은 자들은 개들이 먹었습니다. 남아 묻을 것이라곤 하나도 없었지요. 확실히 죄의 삯은 사망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젊은 선지자들이 엘리사에게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몇몇 젊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소. 오늘 당신의 선생 엘리야가 하늘로 올리워져 가리라는 것을 알고 있소?
그렇소. 하나님이 내게도 말씀하셨소. 하지만 더는 아무 말도 말아주오.

엘리사, 여기 있거라. 나는 여리고로 길을 떠날 거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한 선생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선생님이 가시는 곳 어디나 저도 쫓아 가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선생 엘리야가 하늘로 올리워져 가리라는 것을 알고 있소?
알고 있소. 그러니 우리를 방해하지 말아 주오. 당신만 알고 있소. 선생님을 시야에서 놓치면 안돼오.

여기 여리고에 있거라. 잠깐 요단강에 내려가야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선생님이 살아계시는 한 저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저기 젊은 선지자들이 우리를 또 따라오는구나.
강을 어떻게 건너지요? 오늘 물이 많습니다.
마른 땅위로 가자.
열왕기하 2:3~7

철썩!
아!
봤소? 저들이 지나갈수 있게 물이 갈라졌어.
그래, 마치 모세 때처럼 말이요.
절대 놓칠 수 없는 광경이군.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런 걸 봤어야 하는데!

내가 떠나기 전에 너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선생님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갑절을 제게 주십시오.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하지만 내가 하늘로 올려지는 것을 네가 보면 그렇게 될 것이다.

열왕기하 2:8~11

윙~
불마차는 엘리야
와 엘리사를 갈라
놓았습니다.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 속에 하늘로 올려져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잠잠해졌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있었지요.
남은 것이라곤 그의 겉옷 밖에 없다. 이것을 가지고 요단강을 가르셨는데.
열왕기하 2:11~13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했다!
철썩!
이럴 수가. 굉장한 날이군.

엘리사는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의 두 배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신실했지요. 그러나 백성들은 우상숭배에서 완전히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어디로 갔소?
가서 찾아봅시다!
소용없는 일이야. 그는 이미 하늘로 올라갔소.
열왕기하 2:14~16

https://goodandevilbook.com/